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마련이다.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얼룩말이 돌아다닌다면 누구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눈을 감았다 뗐는데, 얼룩말이 사라졌다면 내가 잘못 본 거로 생각할 거다.

(메인 이벤트 2 회상)

[“넌 노크할 줄도 몰라?”]

응. 그러니까 어젯밤 내가 겪은 일이 현실일 리가 없다.

(회상2)

[“그 대신 후회하게 해줄게. 입단속 한 번 잘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일 턱이 없다.

“아, 후배. 학생회실엔 무슨 일이야?”

노크하고 들어간 학생회실엔 언제나 같은 표정의 은혜 선배가 있었다.

상냥하게 웃는 표정에선 조금의 짜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 그, 그냥. 잠시 들렸어요.”

“그래? 그러면 커피라도 마시고 갈래?”

“괘, 괜찮아요. 축제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바쁘긴.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후배한테 커피 줄 시간 정도는 있는걸?”

(걷는 소리)

은혜 선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 포트 앞으로 걸어갔다.

“커피는 어떻게 해줄까?”

“아, 아무렇게나 요.”

“후후. 제일 어려운 주문이네. 알았어.”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선배가 종이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종이컵에선 코에 익숙한 달콤한 향이 풍겼다.

“자, 믹스 커피.”

“미안해. 학생회실에 커피는 이거밖에 없거든. 실망했어?”

“아, 아뇨. 잘 마실게요.”

은혜 선배는 입술을 적실 정도로만 커피를 홀짝이곤 종이컵을 내려놨다.

“…후배.”

“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선배의 따듯한 눈빛이 나를 감싸듯 비췄다.

“고민 있으면 들어줄게. 후배가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걱정돼.”

“은혜 선배….”

“응. 선배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해. 무슨 일 있어?”

어젯밤부터 정신을 뒤흔들던 고민이 사르르 사라졌다.

저렇게 착한 선배가, 그랬을 리가 없다.

어제 내가 봤던 건 현실이 아니다.

그래. 그건 아마….

1) 꿈 ( 희뿌연 거울 + 안개 장막 )

2) 현실 ( 희뿌연 거울 + 구체관절인형 )

3) 미지 (구체관절인형 + 안개 장막 )